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

임경희¹, 김효춘^{2*}

¹계명대학교 간호학과, ²구미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Self-efficac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on Slow Nursing

Kyung-Hee Lim¹, Hyo-Chun Kim^{2*}

¹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Gum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D시와 K도에 소재한 요양병원 간호사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beta=.355, p<.001$), 자기효능감($\beta=.263, p=.001$), 연령($\beta=.189, p=.046$), 성별($\beta=-.188, p=.008$), 근무형태($\beta=.176, p=.021$)로 나타났고, 느린 간호에 대한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 이상의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 요양병원 노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self-efficacy and caring attitudes of the nurses at nursing hospitals affect slow nursing.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7 to March 12, 2023, by surveying 133 nurses working in nursing hospitals located in D city and 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2.0.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low nursing of nursing hospital nurses wer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beta=.355, p<.001$), self-efficacy ($\beta=.263, p=.001$), age ($\beta=.189, p=.046$), gender ($\beta=-.188, p=.008$), and work type ($\beta=.176, p=.021$). The explanatory power for slow nursing was determined to be 47.4%. We propose that during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slow nursing will improve the slow nursing performance of nursing hospital nurses, thereby contributing towards an improved quality of nursing care provided to elderly patients in nursing hospitals.

Keywords : Slow Nursing, Self-efficacy,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Corresponding Author : Hyo-Chun Kim(Gumi Univ.)

email: khongcc@gumi.ac.kr

Received March 29, 2023

Accepted May 12, 2023

Revised April 11,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에는 25.5%, 2050년에는 40.1%로 예측되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인의 건강 문제로, 노인의 8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지니고 있는 복합 유병 상태인 경우도 68.3%나 되며 만성 질환 평균 개수는 2.5개이다[2]. 이러한 노인의 질병 증가는 질병의 치료와 돌봄의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노인 환자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3].

노인의 건강관리에서는 질병의 치유보다는 노인들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시키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상태를 고려한 대상자 중심의 돌봄이 필수적이다[5]. 이러한 측면의 돌봄은 노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다[6].

그러나 요양병원은 환자들의 개별특성과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제공자 중심의 간호와 돌봄을 행하고 있고[7],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노인에 대해 느리고 의존적이며 감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8]. 특히, 요양병원 노인 환자는 심각한 체력 저하로 신체적 독립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약화된 신체적 문제는 우울이라는 정서적 문제점을 발생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9].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느려진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간호는 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는 것이다[4]. 이러한 노인간호의 특성이 강조되며 최근에 대두된 간호개념이 느린 간호이다.

‘느린 간호’는 간호사가 속도와 생산성 있는 병동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두어서 시간을 가지고 좋은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서 시작되었다[10].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는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접근하여 대상자의 변화나 일상생활 능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처치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대상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과

거에 잘했거나 좋아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을 회상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 방법이다[11].

이는 특히 노인에게 요구되는 간호의 특성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돕고[6], 노인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성 및 자율성을 지켜 자존감을 높이고[12], 노인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에[13] 요양병원 노인에게는 느린 간호가 적절하다.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는 느린 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환자들에게 느린 간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상에서 느린 간호가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느린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느린 간호 제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느린 간호’의 개념이 최근에 대두되어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자기효능감[14,15]과 노인돌봄태도[16,17]가 느린 간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데 있어서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태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실천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K도에 소재하는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노인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이다.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15] G* power 3.1.9를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11개(성별, 연령, 결혼, 학력, 직위, 총 임상경력, 요양경력, 직무만족도, 근무 형태,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를 투입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 항목 누락 등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지 4개를 제외하고 최종 1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이 개발하고, Jung[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였다.

2.3.2 노인돌봄태도

노인돌봄태도는 Sanders 등[21]의 노화이미분별척도와 Maxwell & Sullivan[22]의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를 토대로 Kim[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7점에서 '부정적' 1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긍

정적임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다.

2.3.3 느린 간호

느린 간호는 우현미[11]가 개발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7문항), 관찰 및 참여 격려(7문항), 안위 도모(3문항), 존중(3문항), 삶의 가치 부여(3문항)의 5개 하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였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D시와 K도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노인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각 기관의 간호부장(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허락받은 후 병동에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문자를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연구 참여 도중 탈락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한 간호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15분 정도였으며,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직접 받아 봉투에 밀봉하여 수거함으로써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 (P01-202302-01-044)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설명문에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 절차, 연구의 자발적 참여 및 연구 참여 중단 또는 철회, 익명성 보장,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가 사용되고,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설명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동의서 작성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 8명(6%), 여자가 125명(94%)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48±11.46세로 40대가 39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3명(24.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결혼은 기혼이 102명(76.7%), 미혼이 31명(23.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가 74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간호사가 106명(79.7%)으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15.09±9.73년으로 10년 미만과 10년 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low nursing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i>p</i> (Scheffe)
Gender	Male	8(6.0)	3.16±.34	2.016	.046
	Female	125(94.0)	2.87±.40		
Age	<30 ^a	19(14.3)	2.67±.32	5.348	.001 (e,d/a)
	30- <40 ^b	27(20.3)	2.73±.48		
	40- <50 ^c	39(29.3)	2.90±.32		
	50- <60 ^d	33(24.8)	3.05±.39		
	≥60 ^e	15(11.3)	3.09±.40		
Marital status	Married	102(76.7)	2.94±.39	2.697	.008
	single	31(23.3)	2.73±.38		
Religion	Christian	32(24.1)	2.94±.34	.682	.565
	Catholic	7(5.3)	.05±.39		
	buddhism	25(18.8)	2.86±.40		
	None	69(51.8)	2.86±.43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52(39.1)	2.88±.40	.784	.459
	bachelor's degree	74(55.6)	2.88±.41		
	≥master degree	7(5.3)	3.07±.26		
Position	Staff nurse	106(79.7)	2.88±.42	.916	.403
	Charge nurse	4(3.0)	2.67±.19		
	≥Head nurse	23(17.3)	2.96±.31		
Total career	<10 ^a	45(33.8)	2.76±.41	5.366	.006 (c/a)
	10- <20 ^b	45(33.8)	2.90±.39		
	≥20 ^c	43(32.4)	3.03±.35		
Career of long term care hospital	<5	59(44.3)	2.86±.37	.332	.802
	5- <10	36(27.1)	2.94±.48		
	10- <15	29(21.8)	2.89±.38		
	≥15	9(6.8)	2.86±.32		
Work satisfaction	satisfaction ^a	57(42.9)	2.95±.36	3.172	.045
	moderate ^b	73(54.9)	2.86±.42		
	dissatisfaction ^c	3(2.2)	2.41±.36		
Work type	2,3 rotation ^a	45(33.8)	2.73±.40	6.239	.003 (c/a)
	full time ^b	49(36.8)	2.93±.33		
	keep(D, E, N) ^c	39(29.4)	3.02±.43		

Table 2. The Degree of Self-efficacy,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Slow nursing (N=133)

	possible range	Min	Max	M±SD
Self-efficacy	1-5	2.35	5.00	3.88±.50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1-7	3.70	7.00	5.53±.77
Slow nursing	1-4	2.00	3.87	2.89±.40
match the patients pace		2.00	3.86	2.83±.40
encourage observation and participation		1.57	4.00	2.89±.47
promoting safety		1.67	4.00	3.18±.56
respect		2.00	4.00	3.19±.54
giving value to life		1.00	4.00	2.46±.61

상 20년 미만인 각각 45명(33.8%), 20년 이상이 43명(32.4%)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경력은 평균 6.30±4.49년으로 5년 미만이 59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명(27.1%)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보통이 73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형태는 상근직 49명(36.8%), 2,3교대 45명(33.8%), 전담근무 39명(29.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총 임상경력, 직무만족도, 근무 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가 20대보다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고($F=5.348, p=.001$), 총 임상경력은 20년 이상이 10년 미만보다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으며($F=5.366, p=.006$), 근무 형태는 전담근무가 2,3교대보다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66, p=.006$). 그러나, 직무만족도는 사후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8±.40으로 나타났고, 노인돌봄태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53±.77로 나타났으며, 느린 간호는 4점 만점에 평균 2.89±.40으로 나타났다. 느린 간호 하위영역별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2.83±.40, 관찰 및 참여 격려는 2.89±.47, 안위 도모는 3.18±.56, 존중은 3.19±.54, 삶의 가치 부여는 2.46±.61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느린 간호는 노인 돌봄태도($r=.587, p<.001$), 자기효능감($r=.54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 efficacy,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and Slow nursing (N=133)

Variables	1	2	3
1. Self-efficacy	1		
2.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584**	1	
3. Slow nursing	.546**	.587**	1

** $p<.001$

3.4 대상자의 느린 간호 영향 요인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는 0.368-0.817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224-2.714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이 1.89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은 첫 번째 위계로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B=.245$)과 노인돌봄태도($B=.212$)가 높을수록 느린 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린 간호에 주는 영향력 정도는 노인 돌봄태도($\beta=.406$)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기효능감($\beta=.309$)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의 독립변수로 느린 간호를 39.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일반적 특성 변수가 투입된 것이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B=.209$)과 노인돌봄태도($B=.185$)는 느린 간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추가된 대상자 특성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315, 연령은 많은 경우가 .007, 근무형태는 2,3교대보다 전담근무가 .154만큼 느린 간호 수행이 높았다. 이들 3개 변수의 설명력 10.2%가 유의하게 증가되어($\Delta Adjusted R^2=.102, F=3.670, p=.001$) 모형 2의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Slow nursing

(N=133)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767	.228		3.358	.001	.896	.267		3.351	.001
Self-efficacy	.245	.066	.309	3.713	<.001	.209	.063	.263	3.315	.001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212	.043	.406	4.882	<.001	.185	.042	.355	4.428	<.001
Gender†						-.315	.117	-.188	-2.697	.008
Age						.007	.003	.189	2.014	.046
Marital status†						.070	.080	.074	.870	.386
Work type full time†						.108	.066	.131	1.636	.104
Work type keep(D,E,N)†						.154	.066	.176	2.335	.021
Total career 10-20†						.087	.075	.103	1.152	.251
Total career ≥20†						-.015	.055	-.018	-.171	.865
AdjR ²	.398					.474				
F	44.624					14.197				
						F=3.670, P=.001				

†Dummy variables: The references were Gender(Male), Marital status(single), Work type(2,3 rotation), Total career(<10)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수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느린 간호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느린 간호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우현미의 도구 개발 연구[11]에서 나타난 3.13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현미 연구[11]의 대상자는 총 임상경력 평균이 18년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15년보다 많아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노인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6]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총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간호사가 10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느린 간호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경력이 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와 느린 간호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느린 간호 하위영역별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2.83점, 관찰 및 참여 격려는 2.89점, 안위 도모는 3.18점, 존중은 3.19점, 삶의 가치 부여는 2.46점으로 나타났다. 우현미의 연구[11]에서는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3.01점, 관찰 및 참여 격려는 3.17점, 안위 도모는 3.38점, 존중은 3.44점, 삶의 가치 부여는 2.7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우현미의 연구[11]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영역은

존중이었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노인 대상자들을 존중하면서 공손히 대해야 함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6], 특히 국내 휴머니티드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 간호에 있어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중요시하고 존중이 바탕이 되는 간호를 강조하며 수행하고 있다는 선행연구[24] 등을 고려할 때, 노인 환자를 위한 존중이 느린 간호에서도 가장 바탕이 되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우현미의 연구[11]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하위영역은 삶의 가치 부여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의 실정상 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천천히 관찰하고 간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25], 노인 대상자의 선택을 지지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숙고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간호가 거의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26]. 따라서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 달성을 위해 노인 환자에게 예전에 잘했던 취미나 특기를 해 볼 기회와 지나온 삶을 회상할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간호 제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의 1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로 설명력은 39.8%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6,17].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부분의 노인은 신체적으로 근력이 매우 감소되어 있고, 특히 우울, 불안 증상 등 심리적 문제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9],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노인 환자는 정서적 문제가 증가되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27] 노인간호에 있어서 노인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 환자 간호 시 친근함과 관심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관계에 기반한 돌봄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돌봄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간호사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노인환자 간호 시 적극적이면서 편안한 공감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느린 간호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거의 최초의 시도이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재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노인간호 수행을 더 잘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15]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5] 대상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전인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넓어 작은 실수나 판단오류로 노인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숙련된 간호를 잘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간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노인 환자들에게 느린 간호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잘할 수 있다는 서로 서로에 대한 격려 및 업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느린 간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외 연령, 성별, 근무형태가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은 요양병원 간

호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간호 수행을 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28,29]와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은 총 경력이 많고 노인을 간호한 경험도 많아서 노인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이해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은 간호사는 임상 실무경험이 적고, 노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의 다양한 간호를 관찰하고 수행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노인간호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6] 연령이 낮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정보를 제공하고 느린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과 근무형태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느린 간호 수행을 더 잘하고, 근무형태는 전담근무가 느린 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느린 간호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노인간호 수행과 성별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간호사가 노인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30]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75%가 전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자 간호사들은 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일부 조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고정 근무를 하는 간호사일수록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결과[31]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도 전담근무 형태 및 전담근무를 주로 하는 남자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하는 여자 간호사들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아 느린 간호 수행이 더 좋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및 근무형태와 느린 간호 수행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느린 간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태도는 노인 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서 추후 느린 간호의 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 이론적 의의가 있다. 간호 실무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고,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돌봄을 최대화하기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있으

며, 양질의 노인간호 수행을 위해 느린 간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를 반영한 교육이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개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느린 간호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는 노인돌봄태도, 자기효능감, 연령, 성별, 근무형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느린 간호 영향 요인들을 반영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양병원 노인 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 규모의 더 많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조직적 변인들을 파악하여 느린 간호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분석 및 구조모형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SIS Statistical database, 2023.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A.1&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 [2] Y. H. Lee, "Health Status and Health Services Utilization of Older People and Policy Implications", *repository.kihasa.re.kr*, Vol.10, pp.40-51, 2012.
- [3] K. M. Lee, E. J. Jo, "Influence of Nursing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Adjustment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5, pp.441-45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441>
- [4] H. K. Chang, C. R. Gil, H. J. Kim, H. Bae, E. O. Yang, M. L. Yoon, J. H. Ha, "Nurses' Perceptions of Person-Centered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1, pp.441-45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441>
- [5] S. Morgan,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30, No.1, pp.6-15, 2012.
DOI: <https://doi.org/10.1177/0898010111412189>
- [6] K. H. Kim, H. R. Lee, Y. K. Kim, H. J. Kim, "A Long-term Care Facility's Geriatric Nursing Traits", *The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Vol.15, No.1, pp.35-47, 2014.
DOI: <https://doi.org/10.22284/qr.2014.15.1.35>
- [7] K. J. Kwon, T. J. Park, S.Y. Lee, "How does the long-term care hospital work? -content analysis to conceptualize patient's family and personnel'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16, pp.101-122, 2015.
- [8] Y. R. Kim, "A study on nurse's knowledge, image and practice for the elderly", Master's thesis of Gerontological Welfar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46-54, 2011.
- [9] E. M. Ok, J. H. Lee,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to the Quality of Life in Geriatric Hospital Elderly Inpatient",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10, pp.1-12, 2017.
- [10] A. Gallagher, "slow ethics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Vol.19, No.6, pp.711-713, 2012.
- [11] H. M. Woo, "Development of slow nursing measurement tool for nurse in long term hospital", Doctoral dissertation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1-74, 2022.
- [12] D. Edvardsson, "Notes on person-centred care: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Nordic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35, No.2, pp.65-66, 2015.
DOI: <https://doi.org/10.1177/0107408315582296>
- [13] M. H. Kang, J. S. Park, "Nurses' Recognition about Successful Aging of Hospitalized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A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458-47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458>
- [14] H. J. Koo, J. H. Yang,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Delirium Care for Postoperative Delirium of Elderly Patients among Recovery Room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387-395,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387>
- [15] A. L. Han, S. H. Kwon,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8, No.1, pp.12-21, 2016.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6.18.1.12>
- [16] M. R. Kang, K. S. Jeong,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7, pp.127-137, 2018.

-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127>
- [17] W. R. Ko, J. H. Han, "The Effect of the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f General Hospital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1, pp.628-63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628>
- [18] H. H. Park, Y. S. Kim, I. O. Oh, "The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re Competency of Hospital Nurses with Nursing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pp.531-544, 2015. UCI: G704-000930.2015.17.1.026
- [19]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2, pp.663-671,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20] A. S. Jung,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Master's thesis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68, 2007.
- [21]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Jr,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59-70, 1984. DOI: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22] A. J. Maxwell, N. Sullivan,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28, No.8, pp.341-345, 1980.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1980.tb01095.x>
- [23] Y. O. Kim,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Car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p.56, 2009.
- [24] I. S. Song, I. A. Song, "Perception of Nurses at Dementia Nursing Hospital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Social Welfare Policy*, Vol.49, No.1, pp.61-85, 2022.
- [25] S. B. Kim, Y. R. Park,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for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31, No.6, pp.618-627, 2019. DOI: <https://doi.org/10.7475/kjan.2019.31.6.618>
- [26] S. Y. Lim, S. O. Chang,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 for Ego-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22, No.2, pp.140-152,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40>
- [27] J. Y. Kim, K.H. Kim, "Perceived Hopelessness and Family Support among Eld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6, No.2, pp.151-159, 2014. UCI: G704-SER000008641.2014.16.2.006
- [28] Y. K. Kim, S. H.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9, No.3, pp.203-213,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29] G. H. Sa, G. E. Lee,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7, No.4, pp.309-318, 2016.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4.309>
- [30] J. I. Seol, J. Y. Seo, "The influences of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and empathy for the elderly on geriatric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3, No.3, pp.413-426, 2022. DOI: <https://doi.org/10.7465/jkdi.2022.33.3.413>
- [31] Y. J. Kim, J. S. Park, "Influential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Competenc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5, No.1, pp.81-89, 2019.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9.25.1.81>

임 경 희(Kyung-Hee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5월 : University of Arizona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3년 2월 ~ 현재 : 대한중앙간호학회 부회장
- 2020년 3월 ~ 현재 : 아시아 중앙간호학회 연구위원회 이사
- 2010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중앙간호학, 느린간호, 감염관리, 간호교육

김 효 춘(Hyo-Chun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22년 3월 ~ 현재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초 및 성인간호, 노인간호